

소송 휘말린 광주 첫 민자유치 산단

평동 3차 산업단지 분양업무 소송 100억대 추가비용 발생
입주기업에 2억~4억원씩 떠넘기며 압박 ... 민사소송 제기

광주시가 최초로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 개발한 수전역원대 산업단지 분양 사업이 시끄럽다. <관련기사 3면>
산단조성 과정에서 분양업무 소송 등으로 발생한 1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입주기업에게 떠넘기려다 법적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투자유치로 끌어들인 기업들에게 추가로 땅값을 요구하고, 애초 약속했던 인센티브까지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의 투자유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되고 있다. 개발업체 중심의 분양가 인상 과정 적절성과 업무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광주시가 최근 내부적으로 집중 감사업무를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 시와 업체간 유착 여부 등을 철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7년 처음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광산구 연산동 일대에 평동 3차 산업단지를 착공했다. 총사업비 2353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117만8000㎡(36만평) 조성을 목표로, 현재 86%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오는 5월께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총 공사비가 2442억원으로 늘어남에 이어 지난해 말 최종 2607억원으로 결정됐다. 최초 발표액보다 무려 25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주요 사업비 증가분을 살펴보면, 분양지연 등에 따른 추가 이자 59억원을 비롯해 관련 인건비 5억원, 한전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등 추가 기반시설 50여억원 등으로, 개발 주체의 책임이 커 보인다. 하지만 증가액은 모두 입주기업이 떠안아야 한다.

현재 90개 업체가 입주예정인 평동 104만7000㎡에 분양계약을 했는데 최근 갑자기 평당 6만6000원이 추가됐다. 결국 업체마다 2억~4억원씩을 더 부담해야 할 판이다.
광주시 등은 현재 추가 비용을 거부한 입

주기업에 대해서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장 설립이 급한 일부 기업은 일단 추가비용을 내겠다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1차로 20여개 업체가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정산금 지급부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기업은 등골이 휘는 사이, 보상·분양 업무를 위·수탁 받은 광주도시공사는 인건비 등으로 12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가져간다.

이런 사업을 진두지휘한 광주시는 민간투자 방식에 따라 (주)한양을 1대 주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평동3차산단개발에 분양비 인상 등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계약 당시 추가 비용부담에 대한 설명이나 공지는 없었으며, 이후 추가로 계약한 일부 기업에만 구두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광주시 등이 추가 비용 명분으로 내놓은 계약서 내용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해 정산토록 돼 있다. 그런데 면적의 증감도 없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계약서에 추가 비용 발생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원칙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업무는 (주)평동3차산단개발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답변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광주시의 반응에 (주)평동3차산단개발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입주기업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선분양 방식을 채택한 것인데, 분양업무를 위·수탁한 광주도시공사의 업무지연 등으로 금융비용 증가 등 산단 조성비 증가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도시공사측은 되레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시에 수차례 최종 분양가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는데, 늦어지면서 분양 업무가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수도 없이 이들 기관의 '핑퐁식 책임 떠넘기기' 업무행태를 접해온 입주기업들은 "시와 도시공사 등의 업무태도를 보면 남의 일을 대하는 듯 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 책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 6일 개학을 앞두고 24일 오전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부속여자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학생 책상을 2m씩 떨어뜨려 배치하고 있다. 학교 측은 각 교실마다 손 소독제, 체온계 등을 비치해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수능 1~2주 연기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급 학교 개학이 내달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주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학교 개학이 당초 이달 2일에서 다음 달 6일로 3차례에 걸쳐 1달 이상 미뤄진 가운데 학사일정 변동으로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정부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오는 11월 19일 치르는

방안과, 1주일 연기해 같은달 26일 치르는 방안, 2주 미뤄 12월 3일 치르는 방안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공유하면서 일각에서 요구가 나오는 수능 일정 조정의 필요성도 있다는 인식 아래 수능 연기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에서는 현재 이 같은 3가지 방안 중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 보다는 2안과 3안, 즉 수능을 1주일 또는 2주일 연기하는 쪽으로 논의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알립니다

3·1 마라톤 5월 3일로 연기합니다

대회장소 한국수자원공사 화순홍수조절지로 변경

2020년 4월 5일(일)로 연기한 3·1절 전국마라톤대회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참가자 및 가족, 대회 관계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20년 5월 3일(일)로 대회일자를 연기합니다. 대회장소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화순홍수조절지(전남 화순군 청풍면 차포로 640)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였으며,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코스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구 밀집지역을 벗어나 외곽 지역의 트인 공간인 한국수자원공사 화순홍수조절지에서 순환코스로 대회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니 참가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회본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방역대책 등 안전한 대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정 및 장소변경으로 인해

참가가 어려우신 분들이 개설 것으로 생각되어 참가비 전액을 환불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참가취소 및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대회 홈페이지 자유계시판에 비밀글로 환불받으실 참가자명, 연락처, 계좌번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이 없으신 참가자는 대회 일정 및 장소 변경과 관계없이 참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불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3일(금)까지이니 이점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환불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되기를 기원하며, 변경된 일정 및 장소에 맞춰 행사준비를 더욱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5월 3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달림이 여러분들과 대회장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회 일정 및 장소 변경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본 대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가신청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光州日報社

"100조 긴급 자금 투입 기업 도산 막겠다"

문 대통령, 2차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 발표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

<관련기사 1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000억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결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도 해소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Mercedes-Benz Certified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21개 전시장 보유
- 6년/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증대
-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 1년/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2만km 선드래 적용)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수완동)

